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50]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12. 31 | 발행인 : 민무숙

제주지역 일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신승배¹⁾

목 차

1. 연구개요
2. 분석자료 및 방법
3.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참여 비율
4.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5. 결론 및 시사점

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6차산업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창출과 여성농업인의 소득동기가 결합하면서 농외소득 활동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음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조항(제13조)을 두어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의 우선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의 농가소득(48,963천원)은 농업소득이 31.2%(15,277천원), 농외소득이 40.3%(19,737천원)로 농외소득 비율이 조금 더 높음. 또한 지난 2010년에 비해 농업소득은 전국평균 1.6%(163천원) 증가한데 비해 제주지역은 15.0%(-2,690천원) 감소하였으며,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율은 8.2%로 전국평균(6.7%)보다 1.5%p 높은 수준임
- 특히 지난 2010년에 비해 농업총수입은 38.9% 증가한데 비해 농업경영비는 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소득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 가계소비 지출은 평균 4,398만원으로 전국 평균(3,533만원)보다 높았음.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경제를 꾸리기 어려운 형편임. 낮은 농업수익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 신승배·손태주(2020)의 연구에서도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부족(50%)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외 일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1.8%, 100-150만원 미만이 19.3%로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농가경제의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농업 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분석자료 및 방법

■ 분석자료 개요

-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본원에서 2020년에 수행한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원자료임
-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조사기간 기준 지난 1년 동안(2019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논·밭 등 경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영·경작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한 농가에 2명 이상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경우,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여성이 대상자임

- 표본추출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 조사임
-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함.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확률을 다루는 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인의 증감에 따라 종속변인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표 1 분석자료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농업인 408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 조사
조사기간	2020년 7월 7일 ~ 7월 28일(22일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9%

■ 분석대상자 특성

- 분석대상자 특성은 <표 2>와 같음.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농외소득 활동 여부는 하고 있는 경우가 270명(66.2%),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138명(33.8%)이었음.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65명(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92명(22.5%), 중학교 졸업 이하 82명(2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9명(16.9%) 순임
- 연령별로는 40~50대가 다수임. 그 중 50대가 165명(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111명(27.2%), 60대 이상이 85명(20.8%), 30대 이하가 47명(11.5%) 순임. 귀농여부에서는 113명(27.7%)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95명(72.3%)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간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24.3%, 1천~3천만원 24.0%, 3천~5천만원 12.3% 순으로 나타남.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는 경우는 367명(90.0%)으로 거의 모든 여성농업인이 자신 명의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이외의 일 경험은 있는 경우가 238명(58.3%)으로 없는 경우 170(41.7%)보다 많았음. 직업지위에 있어서는 경영주나 공공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가 286명(70.1%)이었으며,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122명(29.9%)이었음
- 주된 작물은 감귤, 감, 키위, 딸기, 블루베리 등의 과실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류로 나타남. 과실류 49.8%, 채소류 22.5%, 양곡류 13.7%, 기타 14.0%였음. 총 농사기간은 20년 이상이 44.1%, 10년 미만 31.4%, 10-20년 24.5%였으며,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은 92.9%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분석대상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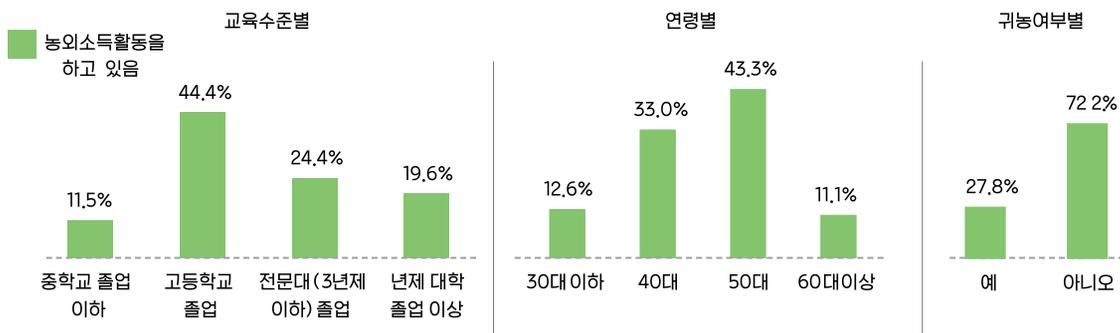
구분		명	%	구분		명	%
농외 소득활동	하고 있음	270	66.2	본인명의 자산	없음	41	10.0
	하지 않음	138	33.8		있음	367	90.0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82	20.1	농업 외 일 경험	있음	238	58.3
	고등학교 졸업	165	40.4		없음	170	41.7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92	22.5	직업 지위	경영주	286	7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9	16.9		가족종사자	122	29.9
연령	30대 이하	47	11.5	주된 작물	양곡류	56	13.7
	40대	111	27.2		과실류	203	49.8
	50대	165	40.4		채소류	92	22.5
	60대 이상	85	20.8		기타(화훼, 특용 축산 등)	57	14.0
귀농여부	예	113	27.7	총 농사기간	10년 미만	128	31.4
	아니오	295	72.3		10-20년	100	24.5
1년간 농·축산물의 총 판매 금액	1,000만원 미만	161	39.5		20년 이상	180	44.1
	1,000-3,000만원	98	24.0	전체		408	100.0
	3,000-5,000만원	50	12.3				
	5,000만원 이상	99	24.3				

3.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참여 비율

■ 인적·경제적 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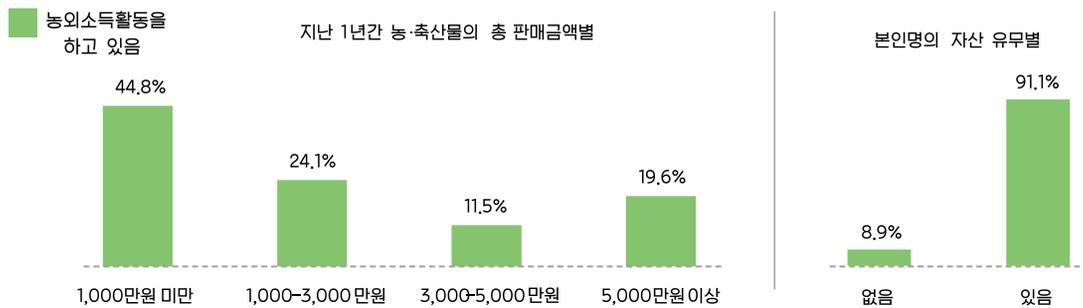
- 교육수준별 농외소득 활동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 24.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6%, 중학교 졸업 이하 11.5% 순이었음. 연령별로는 50대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33.0%, 30대 이하 12.6%, 60대 이상 11.1% 순이었음. 귀농여부별로는 귀농을 하지 않은 72.2%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인적 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비율



-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0만원 미만인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00-3,000만원 24.1%, 5,000만원 이상 19.6%, 3,000-5,000만원 11.5% 순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는 91.1%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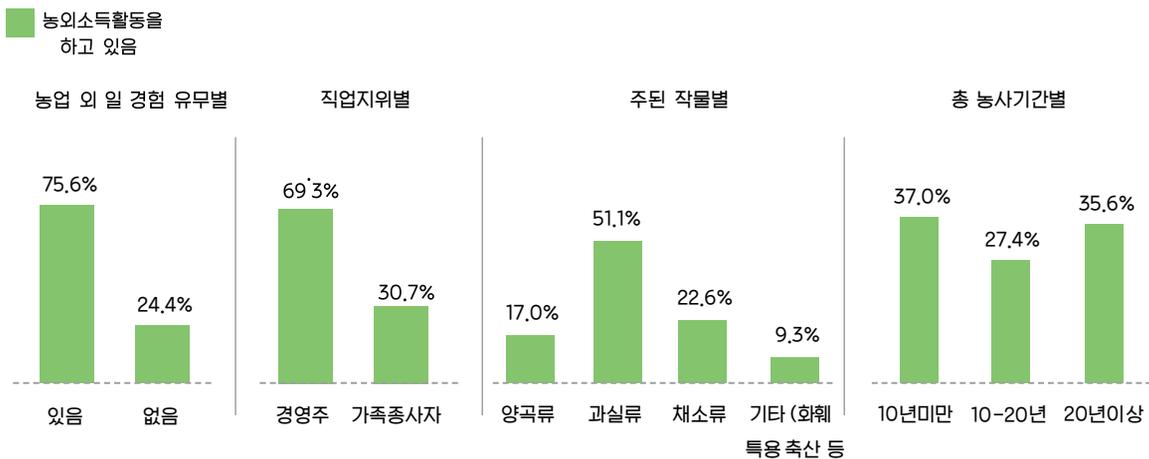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비율



■ 영농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 영농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외 일을 경험한 75.6%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지위가 경영주라고 인식하는 69.3%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 주된 작물별로는 과실류 51.1%, 채소류 22.6%, 양곡류 17.0%, 기타 9.3%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농사기간별로는 10년 미만 37.0%, 20년 이상 35.6%, 10-20년 27.4%가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영농특성별 농외소득 활동 비율





4.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인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영향 요인

- 인적·경제적 특성 모델의 우도비 전체 통계량은 454.856으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게 추정됨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연령’,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으로 정(+)의 인과관계를 나타냈음
- 교육수준에서 농외소득 활동 참여 확률(Exp(B))은 준거집단인 중학교 졸업 이하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졸업은 2.279배, 4년제 대졸 이상은 2.505배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연령대에서는 준거집단인 60대 이상과 비교하여 30대 이하는 3.207배, 40대는 4.653배, 50대는 3.086배 높아 40대를 주축으로 30대 이하와 50대 여성농업인들이 농외소득 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1년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로는 5,000만원 이상과 비교하여 1,000만원 미만이 2.971배, 1,000~3,000만원이 1.941배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높았음
- 인적·경제적 특성에서 드러난 여성농업인 집단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 이하에서부터 50대까지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 참여 확률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 자원의 투입이 절실함

표 3 인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향

농외소득활동 하고 있음		B	S.E	Exp(B)
교육수준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824	.371	2.279*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556	.422	1.744
	4년제 대졸 이상	.918	.443	2.505*
연령 (기준: 60대 이상)	30대 이하	1.165	.471	3.207*
	40대	1.538	.415	4.653***
	50대	1.127	.358	3.086**
귀농여부(기준: 아니오)		.005	.260	1.005
1년간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89	.299	2.971***
	1,000~3,000만원	.663	.321	1.941*
	3,000~5,000만원	.382	.383	1.465
본인자산(기준: 없음)		-.321	.375	.726
상수		-1.467	.344	.231
-2 Log Likelihood		454.856***		
Cox & Snell R ²		.152		
Nagelkerke R ²		.211		

주 : * $p < .05$, ** $p < .01$, *** $p < .001$

■ 영농특성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영향 요인

- 영농특성 모델의 우도비 전체 통계량은 403.747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게 추정됨
- 영농특성 요인 가운데 ‘농업 외 일 경험 유무’, ‘주된 작물’, ‘총 농사기간’의 3가지 변인이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를 인과적으로 설명함

- 농업 외 일 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일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 참여 확률이 8.141배 높았음. 주된 작물의 경우 기타와 비교하여 양곡류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3.641배 높게 나타났으며, 과실류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은 2.018배 높았음. 총 농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농외소득 활동 참여 확률이 0.89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농특성에 따른 영향에서는 농업 외 일 경험이 있거나 양곡류와 과실류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 참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사에 종사하게 된 기간이 길수록 참여 확률이 낮게 나타나 농사 기간이 짧은 양곡류와 과실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외 일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표 4 영농특성에 따른 영향

농외소득활동 하고 있음		B	S.E	Exp(B)
농업 외 일 경험 유무(기준 : 없음)		2.097	.249	8.141 [*]
직업지위 경영주(기준 : 가족종사자)		.169	.275	1.184
주된 작물(기준 : 기타)	양곡류	1.272	.497	3.641 ^{**}
	과실류	.702	.355	2.018 [*]
	채소류	.687	.401	1.988
총 농사기간		-474	.152	.623 ^{**}
상수		-.114	.500	.892
-2 Log Likelihood		403.747 ^{***}		
Cox & Snell R ²		.252		
Nagelkerke R ²		.349		

주 :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연령,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 농업외 일 경험 유무, 주된 작물, 총 농사기간으로 분석됨

- 인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외소득활동 참여도는 30대 이하에서부터 50대,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의 여성농업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이나 4년제 대졸 이상이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농특성과 관련된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는 농업 외 일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주로 양곡류와 과실류를 재배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높았고, 총 농사기간이 길수록 농외소득 활동 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에 맞춘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농외소득 활동 교육지원

- 교육수준에 맞춘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농외소득 활동 교육지원 필요
- 중학교 졸업 이하 여성농업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이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에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특히 농촌 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은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공하고 있는 교육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거나 농외소득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포용한 영농 및 농외소득 활동 교육지원이 필요함

■ 농외소득 활동 교육 및 지원 시 연령특성 반영 필요

- 농외소득 활동 교육 및 지원 시 연령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참여도가 높은 40대, 50대를 중심으로 6차 산업 관련 농외소득 활동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농외소득 활동은 연령과 농사기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40대의 참여 확률이 높게 나타남. 특히 40대는 농업 입문기의 30대에 비해 농업기술 및 역량이 성장하기는 시기로 농업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임

■ 농외소득 활동 교육과 지원이 실제적 소득과 직결될 수 있을 때까지 농업인재 유출 방지 지원

- 농외소득 활동 교육과 지원이 실제적 소득과 직결될 수 있을 때까지 농업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저소득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외소득 활동 교육 시 생계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외소득 활동 참여도가 높은 인과요인 중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원 미만, 농업 외 일 경험 이 있는 경우, 양곡류와 과실류를 주로 재배하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낮은 농업 소득의 영향으로 파악됨. 낮은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낮은 농업소득으로 이어지고, 낮은 농업소득은 농업 외 일 경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양곡류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제주지역 대표적 과실류인 감귤은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임
- 농업소득이 낮은 여성농업인들은 불가피하게 농외소득 활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농업과 관련이 전혀 없는 소득활동을 이어가게 될 경우 농업활동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농업과 관련된 농외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단계에서부터 실제 소득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원스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농업인재 이탈을 방지해야 함
- 특히 농업소득이 적은 여성농업인들은 농외소득 활동이 꼭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농외소득 활동 교육 참여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저소득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기간에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참고자료】

신승배 · 손태주. 202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